

Letter 상.상.상

협동조합마중물문화광장은 <Letter 상.상.상>을 매월 발행합니다.
 '상상상'은 '이상이 일상이 되도록 상상하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Letter 상.상.상>은 시민들과 조합원들의 깊은 소통의 광장이 되길 기대합니다.

2017년 11월 | 통권 2호

'마중물문화광장 샘', 그 후 2개월

협동조합 마중물문화광장이 올 7월 창립되고 조합의 주요한 엔진인 마중물문화광장 샘(이하, 마샘)을 개장한지 2개월이 지났습니다. 이보다 앞선 발기인 대회부터 거슬러 올라가면 불과 5개월 전인데, 아주 긴 항해를 거친 듯합니다. 저 개인적으로 마중물은 '더 이상 잘할 수 없다'고 확신할 정도로 모든 조합원이 혼신의 힘을 다해 달려왔습니다. 하지만 본격적인 항해는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사단법인 마중물은 8년의 시간동안 토론하는 동료들과 함께 더 나은 세상을 상상해왔습니다. 이를 일상에서 생생하게 체현해내고, 한국사회에 대안적 모델로 제시된 것이 협동조합 마중물문화광장입니다. 마중물에게 협동조합은 처음이고 많은 것이 이전의 방식과 다릅니다. 그 다름은 충분히 즐겁고 설레지만, 협동조합이라는 낯선 역사 속으로 들어가는 일은 많은 난관이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실수도 시행착오도 있을 것입니다. 마중물 협동조합이 안정적으로 정착하기 위해 해야 할 일들을 생각하면 저는 조금만 마음이 듭니다. 그러나 언제나처럼 마중물은 차근차근, 마중물의 길고 긴 역사책의 한 페이지 한 페이지를 함께 만들어 왔듯이 그렇게 함께 갈 것입니다.

'플랫폼 마중'은 사단법인 마중물과 협동조합의 사무처입니다. 플랫폼 마중은 무엇보다 관계에 집중합니다. 사무총장으로서 저는 그 관계가 마중물 한명 한명의 개인적인 관계뿐만 아니라, 사회와의 관계, 그리고 역사와의 관계를 포괄한다고 생각합니다. 나의 이야기가 단지 나의 이야기에 국한 된 것이 아니라 나이면서 동시에 '나'들, 우리들, 공동체의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같이 누리는 것, 같이 나누는 것, 그래서 생존을 넘어 실존의 삶으로 역사가 이어지는 것'이것이 마중물이 만들고자 하는 세상입니다.

플랫폼 마중은 이 꿈을 마샘의 광장을 통해 본격적으로 펼치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들이 도처에서 만들어지고, 쓰이고, (시민대학제도 속에서 자리 잡고, 시민사회로 무한히 뻗어나가기를 소망해봅니다. 우리의 꿈, 마중물의 꿈이 참으로 근사하지 않습니까?

"희망이란 원래 있다고도 할 수 없고 없다고도 할 수 없는 것. 그것은 마치 땅 위의 길과 같은 것. 본래는 아무것도 없었으나, 걸어가는 사람들의 많은 발자국으로 만들어지는, 그렇게 만들어지는, 땅 위의 길과 같은 것..." 루쉰의 『고향』 중에서.



정연정
마중물 사무총장

발행처 | 협동조합 마중물문화광장
 발행인 | 김학성
 편집간사 | 김지선
 편집디자인 | 로로브레인 주식회사
 발행일 | 2017년 12월 01일
 주소 | 인천 남동구 소재역남로16번길 75 B104
 전화 | 032 205 6648
 팩스 | 032 232 4460
 홈페이지 | www.masambooks.com
 이메일 | waterforchange@hanmail.net



|목요광장|

매주 목요일마다 책, 영화, 정치이슈를 주제로 토론회가 있습니다. <목요광장>은 나에 대한 성찰의 계기를 만들고, 나의 생각과 나를 둘러싼 관계를 살펴보고, 새로운 나의 사람을 향한 디딤돌이 되고자 하는 강좌입니다.

11.09	세상읽기 <이슈 따라잡기>	유범상 교수
11.16	책읽기 <인간실격>	유해숙 교수
11.26	영화읽기 <보리밭을 흔드는 바람>	이현숙 교수
12.14	책읽기 <떠나보내는 길 위에서>	유해숙 교수
12.21	영화읽기 <여배우는 오늘도>	이현숙 교수/문소리 배우
12.28	세상읽기 <이슈 따라잡기>	유범상 교수

일시 | 매주 목요일 오후7-9시

장소 | 플랫폼 마중 * 오픈강좌로 신청 없이 무료 참여



12.21 '여배우는 오늘도'는 사전참가신청을 받으며, 소정의 참가비가 있습니다. 배우 문소리 참여!

참가비 1만원
선착순 70명
문의 및 신청 |
032-423-0990
010-3865-4974(문자전용)

이 달의 문화광장

|심미안|

마שמ에는 취미생활, 자기계발, 문화교양강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 강좌를 통해 '나에 대한 아름다움을 찾는 눈'(심미안)을 갖게 될 것입니다.

크리스마스 크란츠 만들기

일시 | 11.29(초화), 12.13(생화)

장소 | 세미나실 일상방(마שמ)

회비 | 1회 강의2만원

(음료1잔포함, 재료비별도-초화 3만원, 생화4만원)



캘리그래피

| 일시 |

매주 수요일(오전반 10시-12시, 오후반 7시-9시)

| 장소 |

세미나실 일상방(마שמ)

| 회비 |

10만원(음료 1개 포함, 교재 및 재료비 별도)

| 문의 및 신청 |

032-423-0990

010-3865-4974(문자전용)

|제르미날|

마שמ은 매주 제르미날('새싹이 돋는 달')의 문화공연이 있습니다. 이번 달에는 재즈공연, 인문학강의가 진행됩니다.

'엄은지 퀘텟' 재즈공연 11.4(토) 오후8-9시

'천천히 그리고 깊이 읽기' 인문학강좌

강사 | 김혜형 11.11(토) 오후4시

'트리오메논' 재즈공연 11.18(토) 오후8-9시

'김종호 트리오' 재즈공연 11.24(토) 오후8-9시

제1회 시음회 '별 헤는 밤' 11.25(토) 오후8-9시

'고호정&Sound Diary' 재즈공연 12.02(토) 오후 8-9시

'트리오메논' 재즈공연 12.09(토) 오후 8-9시

마중물파티 12.16(토) 오후 8-9시

'라운제나' 재즈공연 12.30(토) 오후 8-9시



|갤러리 미래|

'마중물의 꿈'의 전시에 이어 갤러리서는 10월 중순부터 '운동주 캘리그래피'를 주제로 전시회를 개최합니다.

운동주 캘리그래피

올해는 운동주 시인 탄생100주년이자 서거72년 되는 해입니다. 운동주 시인이 남긴 아름다운 시를 감성적인 캘리그래피 작품으로 만나실 수 있습니다.

일시 | 10.20~11.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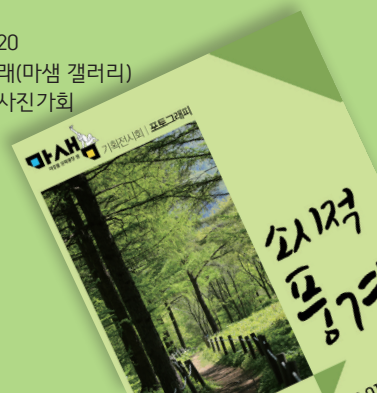
장소 | 갤러리 미래(마שמ 갤러리)

운동주 캘리그래피

일시 | 12.01~12.20

장소 | 갤러리 미래(마שמ 갤러리)

주최 | 성바오로 사진가회



유범상 교수의 BOOK REVIEW



우리는 협력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What-ness vs Who-ness

영화 '귀여운 여인'(Pretty Woman)에 주인공이 평범한 옷을 입고 고급 쇼핑몰에 들어갔다가 쫓겨나오는 장면이 나온다. 하지만 그녀가 명품 옷을 입고 다시 갔을 때 직원의 태도는 사뭇 다르다.

한나 아렌트는 무엇됨(what-ness)과 누구됨(who-ness)을 구분한다. 무엇됨은 사람을 평가할 때 겉모습을 본다. 그의 재산, 옷, 자동차, 학력 등이 주요한 평가의 기준이다. 명품을 두른 사람이 떡볶이를 먹으면 검소하다고 하고, 명문대 나온 사람의 말은 무슨 분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도 왠지 더 신뢰를 한다. 이처럼 무엇됨은 업적과 외모에 따라 세상을 우열의 눈으로 이해한다. '귀여운 여인'의 쇼핑 장면은 우리가 쇼핑몰에서 무엇됨에 의해 평가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하지만 누구됨은 차이로 세상을 이해한다. 모든 사람은 각자의 고유성과 개성을 갖고 있다. 수학을 잘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 음악을 잘하는 사람이 있다. 동양과 서양은 인간을 깊이 이해하는 다른 각자의 문화와 종교가 있다. 사람마다 생각이 다를 수는 있어도 틀린 것은 아니다.

북면가왕이 인기다. 왜 북면을 쓰고 노래를 부를까? 북면이 그 사람의 지위, 인기, 이미지를 가려줌으로써 우리는 온전히 그의 목소리만 듣게 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그의 무엇됨을 가림으로써 그의 누구됨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다.

<폭풍우 치는 밤에>는 어둠속에서 만난 늑대 가부와 염소 메이가 한밤을 보내면서 친구가 되는 이야기이다. 천적관계인 그들이 어떻게 친구가 될 수 있었을까? 그것은 북면가왕처럼 염소와 늑대라는 겉모습을 가리고 만났기 때문이다. 둘은 폭풍우를 두려워하고 맛난 것을 좋아하며 부모의 걱정 속에 살아가고 있는 존재라는 것을 공감한다. 이것은 '귀여운 여인'에서 매춘부와 기업사냥꾼이 외형이 아닌 내면을 쳐다봄으로써 친구가 되는 장면과도 유사하다. 이처럼 무엇됨의 눈에서는 잡고 잡혀 먹는 관계이지만 누구됨에서는 늑대와 염소, 매춘부와 재벌이 각자의 고유한 개성과 차이를 갖고 있는 깊이 소통하는 친구가 된다.

고독한 나에서 연대적 우리로

무엇됨을 추구하는 인간들은 기본적으로 고독하다. 더 많은 명품과 더 많은 경쟁력을 가지기 위해 상대를 딛고 일어서야 하기 때문이다. ‘베블런 효과’는 자신의 우위를 들어내는 것으로 과시적 소비를 하는 인간의 모습을 보여준다. 하지만 무엇됨은 화려함의 이면에 항상 피폐함과 권태로움이 있다.

<페스트>의 오랑시민들의 삶은 권태였다. 일을 많이 하지만 그 목적은 모두 부자가 되기 위한 것이었다. 그런 도시에 죽은 쥐가 나타나고 사람들이 죽어나가기 시작했다. 페스트가 전면에 등장한 것이다. 이에 파눌루 신부는 말한다:

“이 재앙이 처음으로 역사상 나타난 것은 신에게 대적하는 자들을 처벌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애굽왕은 하느님의 뜻을 거역한 탓에 페스트가 그를 굴복시켰습니다. 태초부터 신의 재앙은 오만한 자들과 눈먼 자들을 그 발 아래 무릎 꿇게 했습니다. 이 점을 잘 생각하시고 무릎을 꿇으시오”

어마어마한 재난 앞에서 지배자들은 숙명론에 빠져 문제를 회피하거나 불가피한 것으로 받아들인다. 어찌면 돈을 쫓던 고독한 개인의 예정된 행보인지도 모른다. 하지만 <페스트>는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준다. 페스트라는 부조리와 그 앞에 무기력한 파편화된 개인들을 대체하는 새로운 실천이 등장한다. 보통사람들로 구성된 자원보건대가 그것이다. 보건대에 모여든 사람들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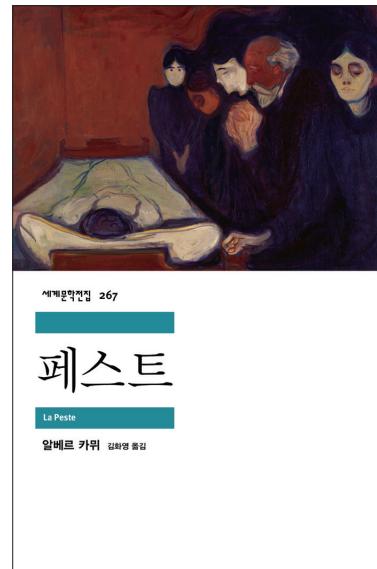
“그 병이 가져 오는 비참함과 고통 앞에서, 체념하고 페스트를 용인한다는 것은 미치광이나 장님이 나 비겁한 사람의 태도일 수밖에 없습니다.”

라는 생각에 동의했다. 카뮈는 말한다: “사실 보건대에 헌신한 사람들도 그렇게 대단한 칭찬을 받을 만한 일을 한 것은 아니다. 그들은 해야 할 일이 그것뿐임을 알고 있었으며, 그런 결단을 내리지 않는 것이야말로 그때 처지로는 오히려 믿을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이다.” 이처럼 카뮈는 인간이 부조리한 상황에서 자발적으로 협력하고 저항할 수 있다는 믿음을 드러낸다.

부조리한 현실을 응집하고 있는 페스트는 이런 평범한 사람들에게 의해 퇴치된다. 그 시작은 자각이다. 누군가가 부조리한 현실에 체념하거나 순응한 것이 아니라 No라고 이야기함으로써 시작된 것이다. 카뮈는 주장한다:

“세계에 존재하는 악은 거의가 무지에서 오는 것이며, 또 선의도 풍부한 지식 없이는 악의와 마찬가지로 많은 피해를 입히는 일이 있는 법이다. ...살인자의 혼은 맹목적인 것이며, 최대한의 성찰이 없이는 참된 선도 아름다운 사랑도 없다.”

카뮈의 언급은 한나 아렌트의 악의 평범성을 연상시킨다. 즉 악은 평범한 사람들이 침묵, 무관심, 방관 등의 태도를 취할 때 생긴다는 것이다. 페스트는 그렇게 생겼고, 이 부조리한 상황에서 자원보건대가 페스트를 자각하고 저항하는 매개자의 역할을 하면서 사라졌다.



우리는 협력한다 고로 내가 존재한다

그렇다면 인간은 위기의 상황에서만 협력할까? 그렇다는 것이 통념이다. 홉스의 <리바이어던>은 이기적인 인간을 통제하는 방법으로 강력한 군주를 상정한다.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도 인간은 이기적인 존재라는 것을 전제하고 시장에서 경쟁을 통해, 즉 보이지 않는 손이 조정한다고 본다. 이 생각이 상식이고 보통사람들의 통념이다.

<펭귄과 리바이어던>의 벤클러는 이에 대해 강력하게 이의를 제기한다. 리눅스의 마스코트인 펭귄 텍스를 상징하는 협력은 이기심을 이긴다고 그는 주장한다. <펭귄과 리바이어던>은 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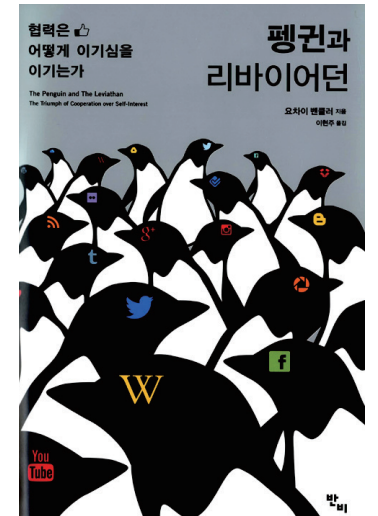
“사우스웨스트항공사, 도요타의 생산공정, 시카고의 지역사회 치안 참여 프로그램, 위키피디아, 리눅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 바로 인센티브나 처벌, 위계적 통제보다는 협력에 의지해 온 시스템이라는 점이다.”

벤클러는 이 사례를 들어 사람들에게 이기적인 모습이 오히려 예외적인 현상이고 협력적인 모습이 보편적이라고 주장한다. 실제로 크로포킨은 <만물은 서로 돕는다>에서 다윈도 “가장 적응을 잘한 종들은 육체적으로 가장 강하거나 제일 교활한 종들이 아니라 공동체의 이익을 위해 강하든 약하든 동등하게 서로 도움을 주며 합칠 줄 아는 종들”이라고 주장했다면서, 상호부조가 인간존재의 본성이라고 주장한다:

“끊임없이 서로 싸우는 종들과 아니면 서로 도움을 주는 종들 중에서 어느 쪽이 적자인가?” 라는 질문을 자연에 던진다면, 의심할 여지도 없이 상호부조의 습성을 가지고 있는 동물들이 적자임을 바로 알게 된다. 그들은 살아남을 수 있는 기회를 더 많이 가지며, 각기 자신들의 부류 내에서 최고도로 발달된 지능과 신체조직을 획득하게 된다. 이러한 견해를 뒷받침하기 위해 제시할 수 있는 무수한 사실들을 모두 고려하면, 상호부조야말로 상호투쟁과 맞먹을 정도로 동물계를 지배하는 법칙이라고 말해도 무리가 없는 듯하다.”

<펭귄과 리바이어던>은 카뮈의 연대적 우리의 시작이 인간에 대한 관점부터 바뀌야 한다고 조언한다. 이기적인 존재인 호모 에코노미쿠스(homo economicus)로 인간을 보면 우리의 상상은 처벌과 보상으로 제도를 구성한다. 즉 당근과 채찍으로 인간을 규율할 것이다. 그러나 협력적인 존재로 호명하고 펭귄의 사례에서 인간을 이해하기 시작하면, 권태로운 일상은 급격히 다른 풍경화로 바뀔 것이다. 무엇됨의 쇼핑몰과 누구됨의 공동체가 어찌 다르지 않겠는가?

이 시대에 그런 공동체가 있느냐고 묻는다면, ‘마샘’이 바로 내 존재의 본성이 펭귄임을 자각하고 누구됨의 눈으로 차이를 존중하면서 새로운 공동체를 상상하는 보통사람들의 광장이지 않는가라고 답하는 근거이지 않는가?



조 합 원 광 장

이 달 의 조 합 원

김종진 조합원



함께 나누고 같이 하는 공동체, 복지국가로 가는 길

안녕하세요. 마중물의 오랜 회원, 협동조합의 조합원 김종진입니다. 저는 2009년 수봉도서관 책읽기 모임을 통해 처음 마중물을 만나게 되었고, 지금까지 참여하고 있습니다. 처음엔 책을 안 읽어도 된다고 해서 가벼운 마음으로 참여했었지만, 지금은 시간이 비교적 여유로운 선배시민으로서 후배시민들과 내용을 나누기 위해, 저 또한 책을 읽고 그냥 지나치면 효과가 없는 듯하여, 매달 발제문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마중물 책모임에 참여하면서 둘째아들이 저에게 “책을 얼마나 읽으세요?” 라고 물어보더군요. 저는 “1달에 1권은 꼭 읽지” 라고 대답했더니 아들이 “그걸 자랑하시는 거예요? 저처럼 1년에 100권은 읽어야지요!” 라고 말하더군요. 출퇴근 시간에 항상 책을 들고 다니면서 읽는 아들을 이길 수는 없나 봅니다.

처음 마중물을 접했을 때 투구 철모를 물바가지로 삼아 마중물로 쓰던 것이 생각났습니다. 해방 후 10년, 펌프가 모터로 바뀌는 모습을 보며 세월이 바뀌어 가는 구나 세삼 느꼈던 기억도 떠올랐습니다. 마중물은 시원한 물을 위한 한 바가지의 물인 만큼 제게 (사)마중물은 추억이자, 갈증 속에 시원한 물과 같습니다.

그 마중물을 통해 만들어진 마샘은 ‘함께 나누고 같이 하는 공동체, 복지국가로 가는 길’입니다. 지난 11월 첫 주에는 아들, 손자들까지 함께 마샘에 와서 책도 구경하고 이야기도 나누었습니다. 중·고등학생 손자들에게 책 한권씩 선물을 해주니 책을 들고 좋아하더군요. 이제 저는 혼자만 공동체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들과도 마샘에 찾아오며 희망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마샘과 같은 공간이 잘 성장하여야 저도 성장하고, 우리나라도 복지국가로 거듭날 것이라 생각합니다.

앞으로 마샘에는 계속 많은 사람들이 찾아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중물과 함께 하시는 교수님들의 제자들도 계속 생기고 있고, 지역주민들도 점차 마샘을 많이 이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협동조합으로 구성된 마샘이 과거 잘못된 다른 협동조합들과는 다르게 조합원들의 의견을 잘 모으고, 투명하게 운영되며, 토론하는 동료들을 많이 만날 수 있는 광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조 합 원 사 랑 방

제1회 조합원 사랑방 보고

일시 | 2017.11.11(토), 오후 4~11시

장소 | 플로리안 공감, 플랫폼 마중

참석자 | 조합원 · 준조합원 · 조합에 관심 있는 분 80여명

1부 인문학강좌

천천히 그리고 깊이 읽기-‘자연에서 읽다’를 주제로 김혜형 작가님의 인문학 강좌가 진행되었습니다.

2부 조합원 사랑방

정연정 마중물 사무총장님의 사회로 토론과 상상의 시간이 시작되었습니다.

첫 번째, 토론과 상상

◆ 협동조합 이사장 환영사와 협동조합 보고

김학성 협동조합이사장님의 환영사를 시작으로 협동조합 마중물문화광장의 조합현황, 이사회 주요 결정사항을 보고하였습니다.

◆ 조합원 소개 및 토론

나에게 협동조합 마중물문화광장이란 무엇인가를 주제로 80여명의 참가자들의 자기소개를 하였습니다.

- 나에게 마중물은 눈을 뜨게 한 곳이다.

- 마샘과 같이 편하게 토론할 수 있는 공간이 생겼다는 것이 좋다.

- 마샘이 우리 동네에도 생겼으면 좋겠다. 등

마중물과 마샘에 대한 생각들을 공유할 수 있었습니다.

◆ 조합원 퀴즈와 선물

유윤열 조합원님의 진행으로 넌센스 퀴즈부터, 우리 조합원 중 최연소 조합원 맞추기, ‘김학성’ 협동조합 이사장님과 ‘이재필’ 마샘 대표님의 이름으로 삼행시 짓기 등 퀴즈시간이 이어졌습니다.

◆ 조합원의 권리/의무와 마샘의 비전

마샘 운영의 현황, 조합원과 함께 가야할 마샘, 앞으로 마샘의 계획에 대한 이재필 대표님의 이야기와 조합원들의 의견들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 마중물의 이상과 일상

협동조합 마중물문화광장은 마중물의 이상을 일상으로 처음 드러낸 모델하우스이자, 바닷물과 강물이 만나는 것처럼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고, 다양한 소용돌이가 생기면서 즐거운 소통의 과정이 필요하다는 유범상 교수님의 정리강연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 사랑방 주인과 마중물

유윤열 조합원님의 진행으로 건배사와 함께하는 마중물 뒷풀이가 플랫폼 마중에서 진행되었습니다. 벽면에 붙여진 마중물의 어록들은 건배사가 되었고, 서로의 이야기를 편안히 나눌 수 있는 소통의 광장이 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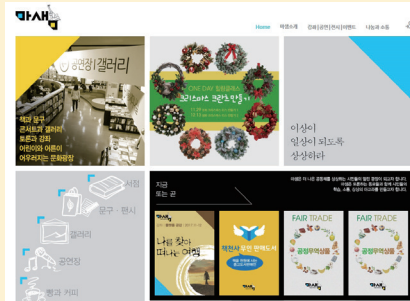


조 합 소 식

마샘 홈페이지 개설

마중물 문화광장 샘! 마샘의 홈페이지가 드디어 개설되었습니다. 마샘의 다양한 강좌 및 문화공연부터 도서 이벤트까지, 마샘의 소식을 쉽게 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더불어 마샘 둘러보기를 통해 마샘 곳곳의 사진을 미리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유게시판을 통해 마샘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을 접수할 예정이며, 추후에는 도서 및 문구 접수를 위한 게시판도 개설될 예정입니다.

홈페이지 주소 : www.masambooks.com



협동조합 마중물문화광장 총회 및 2차 조합원사랑방 안내

올해가 끝나면, 협동조합 마중물문화광장도 바쁘게 달려온 2017년을 정리하게 됩니다. 관련하여 조합원 여러분들을 모시고 총회를 개최합니다. 2017년 협동조합의 운영내용 및 2018년 계획을 보고하고 제2회 조합원 사랑방도 함께 진행됩니다. 많은 조합원 분들의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진행일 | 2018년 2월 3일

장소 | 미정 (추후 재공지 예정)

마샘 서포터즈

자유롭게 상상하고 실천하며 길을 만드는 '마샘 서포터즈'가 창단되었습니다.

서포터즈는 마샘모니터링, 마샘홍보, 프로그램 봉사, 정기모임을 통해 마샘과 함께 성장하고자 합니다.

지난 11월 3일, 1차 초동모임을 시작으로 이정미 단장, 오명심 활동위원, 이동훈, 이예나 단원이 함께해 주셨으며, 서포터즈의 구성, 자원봉사단 프로그램 구성, 서포터즈 소식지 제작 등 열정적으로 창단준비에 힘써 주셨습니다.

마샘 서포터즈는 지역사회 주민과 마샘 이용자를 중심으로 구성될 예정이며, 함께 할 서포터즈 단원을 모집하고자 합니다.

모집내용 | 마샘서포터즈 단원 모집

활동내용 | 마샘홍보, 봉사활동 등

문의 | 플랫폼 마중(waterforchange@hanmail.net, 010-6744-0648)



협동조합 마중물문화광장은 이상이 일상이 되는 상상에 함께 할 조합원을 기다립니다

| 조합원 가입 방법 |

아래 조합원가입신청서를 작성하여 전송바랍니다.

- 이메일 | waterforchange@hanmail.net
- 팩스 | 032-232-6640
- 문자 | 010-6744-6648
- 문의 | 032-205-6648 (김지선 사무국장)

협동조합 마중물문화광장 조합원 가입신청서

본인은 협동조합 마중물문화광장의 목적과 취지에 동참하고자 조합원 가입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주소	
연락처	
이메일	
가입유형	<input type="checkbox"/> 조합원 <input type="checkbox"/> 준조합원 ※ 해당란에 <input checked="" type="checkbox"/> 표시해 주세요
출자좌수	()구좌 ※ 1구좌 이상 신청가능

조합원 가입은 언제든지 가능하며, 1회의 출자로 회원자격을 갖게 됩니다.

조합원의 1구좌는 100만원이며, 준조합원의 1구좌는 10만원입니다.

입금계좌 | 국민은행 268801-04-215706(예금주 : 협동조합 마중물문화광장)

201 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인)

협동조합 마중물문화광장 이사장 귀하

조합원과 준조합원은 협동조합 운영과 이용에 권리와 의무를 가집니다. 준조합원은 총회의결권을 가지지 못하고, 협동조합 이용 시 아래와 같이 혜택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유형	서적 할인	문구, 음료, 공연, 강연 할인	조합운영 의결권	적립
조합원	10%	20%	○	1%
준조합원		15%	×	